

붕산 수입의존 “심화”

93년 6600톤 수입 ... 수요기업들 설비투자 외면

국내 붕산 수입이 최근들어 급증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 붕산 원재가 일부 산재해 있으나, 실수요 기업에서는 소량을 생산하기 위해 설비투자가 많이 드는 쪽을 택하기 보다 경제적인 맥락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1년까지 연평균 3000톤 정도에 머물렀던 붕산의 수입량이 92년 5000톤으로 급증하기 시작해 93년에는 6600톤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수입의존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붕산의 수입이 최근 급증한 주요인으로는 92년5월부터 상업생산을 시작한 한국베트로텍스의 수입에 따른 물량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베트로텍스 관계자는 유리장섬유 제조에 쓰이는 주 원료로 붕산을 직접 들여오는 물량이 월 200톤 정도되므로 중간 dealer를 거치지 않고 원자재의 안정공급 차원에서 직접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붕산의 실수요기업은 한국베트로텍스, 태평양금속, 일진 금속, 한국유리, 한국특수유리 및 유약업체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태평양금속의 경우 페라이트파우더가 1마이크로 미만인 연유로 침전속도를 촉진시키기 위해 붕산을 첨가물 형태로 소량 투입하며, 대부분의 기업에서도 소량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붕산의 93년 국가별 수입실적을 살펴보면, 미국이 3911톤(250만7000달러)으로 가장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으로 이탈리아 1628톤(106만4000달러),

칠레 648톤(41만달러), 일본 174톤(22만5000달러), 페루 192톤(11만2000달러), 중국 36톤(2만2000달러), 독일 4톤(9000달러) 순으로 집계됐다.

붕산의 수입가격은 CIF기준 톤당 600달러선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가장 많이 수입된 미국산을 기준으로 할 때 로칼거래가격은 KG당 700원에서 750원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리, 의약, 니켈도금첨가, 염·안료, 방부제, 살충제, 촉매, 인조보석, 화장품, 사진, 피혁공업용 등에 다양하게 쓰이는 붕산의 주용도인 유리공업에서의 장점은 붕산이 분해돼 고온에서 생성된 B₂O₃가 SiO₂와 같이 망목형성화합물을 만들어 SiO₂보다 낮은 용점의 장점을 살려 원제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붕산의 수입실적(국가별) (단위: M/T, 1000달러)

구 분	1993		1994	
	중 량	금 액	중 량	금 액
미 국	3,911	2,507	588	554
이 태 리	1,628	1,064	357	366
칠 레	648	410	113	110
일 본	174	225	27	78
페 루	192	112	53	72
중 국	36	22	-	-
독 일	4	9	1	3
합 계	6,593	4,349	1,139	1,183

주) 1994년은 중량은 2월까지, 금액은 3월까지의 실적임.

<화학저널 1994/5/30>